

교 회 소 식

1.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예전 색깔은 흰색입니다.
2. 다하나교회에 처음 오신 분과 방문하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 생일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 19 : 이현아

*다음주 예배봉사자

- 기도: 성백찬 / 설교번역: 강지연
- 6월 안내 및 봉사: 주나 목장

*향후 교회 행사 (Church Plan)

- 야외예배 : 8월 24일, Silver Lake Park

*성서일과 Lectionary (제 24주)

잠 8:1-4, 22-31 / 시 8 / 롬 5:1-5 / 요 16:12-15

교회세운날 2017.6.11

25-24

6월 15일 (삼위일체 주일)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주 일 예 배 : 매주 주일 오후 3시
수요기도회 : 6월부터 8월까지 쉽니다.

3401 SALEM RD SW, ROCHESTER, MN 55902

Web : <https://mnrochesteroneheartchurch.com>

담임목사 : 김경헌 목사 (213-357-7614)

예 배 순 서

인도자: 김경헌 목사

예배로의 부름과 기원 — 마 28:19-20 — 인도자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양과 경배 — 찬양팀과 함께

기도 — 강지연

찬송 —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 다같이

성경봉독 — 요한복음 14장 26절 — 인도자

설교 — 성령의 사람은 낮의 사람입니다 — 김경헌 목사

봉헌찬송 —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 5절) — 다같이

봉헌기도 — 인도자

교회소식 — 인도자

*파송찬양 —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 다같이

*축도 — 인도자

* 표에는 일어납니다.

목회편지 / 비빔밥 공동체

지난 주는 여름 가족 캠프가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가장 많은 분들이 함께 한 캠프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알차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공동체를 섬겨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TF팀은 캠프 전부터 많은 열정을 이미 쏟아 부으셨고 그 결과 진행이 물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우리교회 대표 레크레이션 게임이 되어버린 “몸으로 말해요”를 비롯한 박진감 넘치는 게임을 인도해 주신 새로운 진행자들 덕에 모두 즐거웠습니다. 새롭게 봉사부를 맡으신 두 분의 자매님 덕에 식사와 간식이 풍성했습니다. 남성분들의 섬김으로 맛있는 스테이크와 양념 돼지구이를 먹는 호사도 누렸지요. 어린 자녀들을 돌봐주신 분들의 수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야외 쉼터에서 함께 즐겁게 식탁을 나누는 모습을 보는데 몽클하더라구요. 주님이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매년 맞이하는 우리 교회의 잔치이자 축제날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녁 식사를 사이에 두고 진행된 주제 강의가 힘들지는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 한 주제를 가지고 스피릿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가족 캠프가 유일하다는 생각에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스피릿은 공유가 되지 못하고 정보만 전달되는 데 그친 것 아닌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도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예배”라는 주제를 함께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가족 캠프가 끝나니 이틀 정도 무너진 몸의 밸런스를 찾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어떤 분께서 집에 심어 놓은 부추 좀 베가라 하셔서, 그 부추로 부추김치를 해 먹었습니다. 부추 김치가 입맛을 돋구고 밸런스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듯합니다. 부추 김치를 먹노라니 고향에 계신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뒷뜰에서 갓 베어 온 부추로 김치를 담그시고 전을 짓어주곤 하셨던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요 며칠 전에는 미나리를 주신 분이 계셔서 미나리 초무침을 해 먹었습니다. 미나리 무침에 홍어가 빠져서 아쉽긴해도 이역만리에서 미나리 무침이라니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미네소타 한인 교회 목회자 모임에 갔을 때 목사님들께 들은 이야기인데 한인들이 미국 이민와서 고향 음식이 먹고 싶어서 별의 별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 하나가 보신탕이었는데, 동양 남자보다 더 소중한 대우를 받고 있는 개들의 천국인 이 나라에서 보신탕이라니 듣고만 있어도 긴장감이 돌더군요. 보신탕을 먹기 위한 첩보작전을 방불케 하는 한인들의 눈물나는 사투를 들으며 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향의 음식, 그것은 추억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이겠죠. 가족 캠프의 식탁이 한 끼 식사를 떼우기 위한 것 정도라면 아무것도 아니었겠지만, 한 가족된 우리의 정체성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니 그곳이 천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일 점심 메뉴인 비빔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비빔밥 사발에 각양 각색의 먹거리들이 붉은 고추장에 버무려져 어우러지듯, 우리도 서로 취향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붉은 피로 하나되어 예수의 향기와 천국의 맛을 내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 가면 좋겠다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